

요약

2021년 영국은 금융당국의 규제 밖에 있던 상조산업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허가를 받은 상조회사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함. 이를 통해 상조상품을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SMA)으로 규제하며, 소비자는 금융 서비스 보상 제도(FSCS) 및 금융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됨. 이러한 상조산업에 대한 금융규제 도입 이후 장례비용 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생명보험 상품의 비중이 증가함

- 영국의 금융상품은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SMA)의 규제를 받고 있으나, 상조상품은 비금융으로 분류되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2017년 영국 금융당국은 상조회사 세이프핸즈플랜즈(Safe Hands Plans Ltd)의 재정악화 가능성을 보고 받았으나 당시 규제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음
 - 사망을 전제로 하는 생명보험(특히, 고연령 무심사 생명보험¹⁾)과 신탁과 연계된 금융상품은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SMA)의 규제를 받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상조상품은 큰 금액의 선불금을 지불함에도 비금융으로 취급되어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음
 - 2017년 영국 재무부와 금융감독청은 소비자단체인 페어러파이낸스(Fairer Finance)로부터 영국 상조회사 세이프핸즈플랜즈의 재정 악화 및 파산 가능성에 대해 보고받았으나, 당시 제도하에서는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음²⁾
- 영국 정부는 상조산업에 대한 의견 조사(Call for Evidence)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상조상품을 금융감독청(FCA)의 규제 범위 내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18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친 후 2022년 7월 29일 법안이 발효됨³⁾
 - 영국 정부는 2018년 6월, 상조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련 단체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 조사(Call for Evidence)를 통해 상조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구했음
 - 상조산업은 불투명한 자금관리, 부당한 수수료 및 과도한 비용 부과, 상조 서비스 미이행, 공정하지 않은 계약 조건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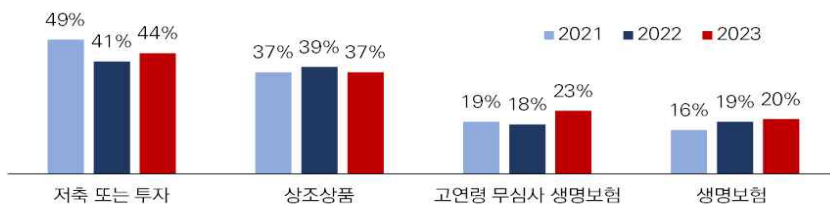
1) 고연령 무심사 생명보험 상품은 50세에서 80세 사이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으로, 건강 상태에 대한 심사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주로 장례비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임

2) Today's Wills & Probate(2024. 9. 27), "Campaigners call for public inquiry into pre-paid funeral plan firms after collapse of Safe Hands"

3) GOV.UK(2020. 3), "Regulation of pre-paid funeral plans: response to the consultation"

- 영국 정부는 상조산업에 대한 새로운 법적 규제 기관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옵션을 고려한 후, 상조회사를 금융감독청(FCA)의 규제 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함
 - 2021년 제정된 법안⁴⁾에 따라 2022년 7월 29일까지 모든 상조회사는 금융감독청(FCA)의 허가를 받아야만 상조계약을 체결하거나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허가를 받지 못한 상조회사의 기존 상조계약은 허가를 받은 업체로 이전 또는 환불 등의 방식을 통해 사업을 정리하도록 함
- 영국의 66개의 상조회사 중 39개 회사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26개의 상조회사가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지속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상조계약의 약 87%가 금융감독청의 규제와 보호를 받게 됨
- 규제를 통해 상조회사의 무작위 전화 판매(Called Calling)와 장의사 등의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금지되고, 허가를 받은 상조회사의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는 금융 서비스 보상 제도(FSCS)의 보호를 받으며, 상조계약에 대한 불만을 금융 ombudsman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됨
 - 상조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계약 2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전액 환불 가능하며,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액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후 취소하는 경우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짐
 - 전환 기간 동안 세이프핸즈플랜즈가 파산하면서 약 46,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세이프핸즈플랜즈는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미지급금이 6,400만 파운드 이상 남아있었고, 남은 자산은 400만 파운드 미만으로 대부분 해외에 투자되어 영국 금융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있었음⁵⁾
- 금융규제 이후 장례비용 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고연령 무심사 생명보험을 포함한 생명보험상품의 비중이 증가함
- 2022년 규제가 시작되면서 세이프핸즈플랜즈 등 허가를 받지 못하고 파산 또는 청산한 상조회사로 인해 상조상품보다는 저축 또는 투자, 보험상품 등으로 관심이 이전된 것으로 보임

〈그림 1〉 장례비용 준비를 위한 주요 수단 현황(2021~2023년)



주: 생명보험 항목은 고연령 무심사 생명보험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SunLife(2023, 2024), Cost of Dying Report

- 한국 상조회사의 경우 선수금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하지만,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로 분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를 받으며, 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에 공백이 많음
- 현재 한국 상조회사의 경우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것 외에 나머지 선수금 50%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과 공시 의무가 없음

4) 영국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SMA) 개정 법령: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Regulated Activities)(Amendment)(No. 2), Order 2021

5) This is Money(2022. 5. 2), "Failed funeral plans provider Safe Hands coughs up just £4m of £64m needed to pay back customers"